

‘방법적 고독’의 비평을 위한 변명

욕망이 각축하는 시장이 돼버린 비평의 타락...
권력에서 벗어나 절대고독의 공간으로 돌아가야 할 때

김명인 | 문학평론가

“1980년대 비평이 ‘운동권력’이었다면 1990년대 비평은 ‘상품권력’이다.
그 권력 역시 문학을 살리는 권력이 아니라 문학을 고갈시키는 권력이다.
문학의 위축이 상품화의 충동을 낳고, 상품화의 충동은 다시 문학을 고갈시킨다.
이 과정에서 1990년대 비평이 한 일은 끔찍한 것이었다. 1990년대 비평의 주류를 이룬
비평가들 가운데 누가 이 악순환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벌써 일년 반 전의 일인데, 어떤 문학잡지에 권 두에세이를 쓴 일이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비평 현장을 떠나 있다가 다시 몸을 추스려 글쓰기를 재개하려고 하던 즈음이어서 어떤 자세로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나는 그 자리를 빌어 내가 비평에 입하는 몇 가지 자살한 원칙들을 밝힌 바 있다. 그것들은 첫째, 잡지나 출판사의 청탁을 받아 쓰는 비평은 하지 않는다, 둘째, 작품집에 붙이는 발문이나 해설은 쓰지 않는다, 특히 뒷표지나 광고에 실리는 몇 줄 짜리 축사는 절대 쓰지 않는다, 셋째, 시인, 작가들과의 사사로운 관계는 되도록 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문학동아리건 만들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는 네 가지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저러하게 한다, 또는 할 것이다’가 아니라 ‘무엇무엇은 하지 않는다’는 궁색하고 소극적인 원칙들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을 읽는 식견도, 어려움을 타개할 기획도 가지지 못한, 갈 데 없는 일개 서생의 선병질 아닌가. 세상을 어찌 해보지도 못한 채 제 한몸 지고 사는 게 힘겨운 꼴이 그렇게 역력할 수가 없다.

원심화의 시대에 맞설 윤리적 자의식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지금도 그 알량한 원칙들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평가의 일이란

당대의 세계를 비판적으로 가늠하고 그로부터 동시대인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게 낡은 생각이 아니라면, 세계를 읽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동시대의 비평의 공준을 세우는 일에는 속수무책인 채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청명과니처럼 암중모색만 거듭하고 있는 나는 지금 엄밀히 말해서 비평가라고도 할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자살한 방어적이고 비생산적인 원칙들만 고수하며 세월을 보내다 보니 그 나름대로 어떤 문리가 트이는 것이 없지는 않다. 이런 원칙들을 내세우고 지키는 것은 어쨌든 고독을 얻고자 하는 일이다. 일단 시세에 휘둘리지 않는 불가침의 영역을 긋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심산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고독은 수동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방법론적인 것이다. ‘방법적 고독’이란 것도 있지 않겠는가. 한 사람의 비평가로서 허망한 글, 내키지 않는 글은 한편도 쓰지 않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야기되는 그 어떤 희생이나 손해도 감수하겠노라는 생각이 그저 퇴영적이고 자학적인 생각만은 아니지 않은가.

내가 이렇듯 ‘방법적 고독’을 말하는 것은 비평가로서의 내 삶과 생각에 어떤 정화(淨化)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1980년대식의 거대담론을 향한 충동과 1990년대식의 미시담론

을 향한 경사 모두를, 그 안에 든 낭만적 영웅주의와 소시민적 허무주의 모두를, 강렬한 윤리적 자문(自問)의 불길로 다 태워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리고도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나라는 이름의 주체로 돌아가자는 생각. 모든 권위와 권력이 상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도 해체되고, 모든 확고했던 중심과 경계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미증유의 원심화의 시대지만, 그 원심화를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자의식은 남지 않는다. 이럴 때 바로 이런 주체의 자의식을 묻는 일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비평의 일이 아닌가.

비평의 포장술이 문화권력으로 전화해

그러나 이런 차원까지 갈 일도 아닐지 모른다. 이 비평의 타락이 공공연한 시대에 혼돈의 세계에 처한 비평가의 자의식을 묻는 일은 차라리 사치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1980년대를 지배했던 엄숙주의의 강박이 사라지고, 문학이 시대정신의 구심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나가게 된 이후 문학비평의 장은 그 자체로서 욕망이 각축하는 시장이 돼버렸다. 문학작품을 발표하고 출판하는 일이 하나의 정치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문화운동 수준에서 하나의 트렌디상품을 출하하는 장사 수준으로 타락해가면서, 비평 역시 상품포장을 위한 장식행위로 전락하고, 이에 따라 비평

과 무자각적 매문의 경계 역시 사라져 버렸다. 더 나쁜 것은 그런 창작과 비평 양면의 상품화가 하나의 문학담론으로 재차 포장된다는 것이다. 비평이 문학상품을 포장하고, 그렇게 포장된 문학상품이 잘 팔리면 그 포장술로서의 비평이 문학적 시민권을 얻고, 한술 더 떠서 하나의 문학담론으로, 또 나아가 하나의 권력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권력의 중심이 형성되면, 모든 권력이 그렇듯이 그것은 무성하게 증식한다. 1980년대 비평이 '운동권력'이었다면 1990년대 비평은 '상품권력'이다. 그 권력 역시 문학을 살리는 권력이 아니라 문학을 고갈시키는 권력이다. 문학의 위축이 상품화의 충동을 낳고, 상품화의 충동은 다시 문학을 고갈시킨다. 이 과정에서 1990년대 비평이 한 일은 끔찍한 것이었다. 1990년대 비평의 주류를 이룬 비평가들 가운데 누가 이 악순환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거친 일반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1980년대 비평이 '윤리과잉'이었다면, 1990년대 비평은 '윤리결핍'이다. 이 윤리의 결핍은 상업주의에 매몰되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의식의 실종과 투항주의로도 나타난다. 이를테면 애초부터 냉소적 시장주의를 내건 《문학동네》의 비평의식은 말할 것도 없지만, 권력과의 본원적 긴장을 근본으로 하던 《문학과사회》의 보수화와 권력화, 민족문학론의 이론적·실천적 기지였던 《창작과비평》의 정체성 혼란은 비평의 위기가 이미 어떤 선을 넘어서버린 것이라는 생각을 피할 수 없게 한다. 나는 우리 비평의 상업주의적 문화권력화가 지금 당장 종식되지 않고는, 비평가들이 그 혼란한 쾌락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는 비평의 위기, 나아가 문학의 위기는 이제 문학의 종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상업주의적 문학 권력에서 자유로워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다. 나 스스로도 그동안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통에 이미 우리 비평이 빠진 수렁에 한 발은 죽히 들여놓은 폭이지만 그래도 아직 빠지지 않은 한 발은 남아 있다. 그 알량한 원칙들 덕분이다. 그 덕분에 나는 어떤 상업주의적 문학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됐을 것이다. 그



우리 비평의 상업주의적 문화권력화가 지금 당장 종식되지 않는다면, 비평의 위기는 이제 문학의 종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비평집 코너.

러나 그 자계(自戒)의 원칙과 그 안에 든 '방법적 고독'이라는 알맹이는 자학적이지는 않더라도 처음에 말한 대로 그저 한 게으른 비평가의 자기합리화에만 쓰일 뿐인 소극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혹시 이 방법적 고독을 다른 비평가들과 나눌 수는 없을까. 나는 모든 비평가들이 이 고독을 자기의 것으로 한다면, 죽어 가는 우리 비평이 회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그것은 고리타분한 윤리캐мп인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김없이 타락한 세계에선 그런 윤리적 처방도 쓸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지금 이른바 '비판적 글쓰기'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을 그 윤리적 처방이 꽤 효과를 보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사례로 볼 수는 없을까. 지나간 시대 이래 방만하게 형성돼온 온갖 신화와 이상과 권력과 상투형과 위선과 이율배반과 자가당착을 적나라하게 공격하는 글쓰기를 수행하는 극소수의 비평가들에게서 나는 이 방법적 고독이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본다.

의지할 만한 외적 규율이 소멸한 세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는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이다. 그 자신조차 사실은 이루 다 해명할 수 없는 타자들이 벌이는 욕망의 전장에 불과하다면 자기 자신은 다시 그 자기 자신 속에 들어와 놓고 있는 타자들을 발견하고 비판하는 주체가 되던 된다. '나'는 최소한 이처럼 비판하는 주체

는 될 수 있다. 아니 그것은 최소치가 아니라 사실은 최대치다. 비판하고 회의하는 주체가 말로 다른 것으로 환원불가능한 최고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방법론적 고독이란 이상적 수준에서 바로 이런 주체와의 치열한 대면의 방법이자 결과물인 셈이다. 어떤 것도 두려워함 없는 자기비판과 타자비판의 동시적 추구—나는 이것을 '비평가의 윤리'라 부른다. 나는 우리 시대에 비판적 글쓰기를 실천하는 일부 비평가들 역시 이런 방법적 고독과 윤리의식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 생각한다. 때로는 형식이 내용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어떤 화려한 수사학도, 어떤 고담준론도 이런 윤리의식, 비평적 자의식을 통과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나는 우리 비평계에 거듭 환기하고자 한다.

글쎄, 이런 일은 불가능할까. 우리 시대의 비평가들 모두가 자기의 책상 앞, 그 절대고독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일은. 권력화된 동아리집단에 어설픈 한 다리 걸치지 않고, 비대한 문학출판사들로부터 주어지는 몇 푼의 돈과 명예를 좇지 않고 비평가로서의 순수한 정체성에 귀의하는 일은. 그리하여 동시대의 문학과 세계와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홀로 서는 일은. 혹시 그 일은 지금 바로 무를 자르듯 결단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은 아닐까. ●